

충북학 누리

여는글

고전문학으로 본 충북의 지역성 연구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노래 속의 무심천

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포석 생가의 밤나무

엄마가 들려주는 충북의 옛이야기

- 황희 정승의 사위가 된 비범한 총각
- 소물이보다 힘든 『맹자』 읽기

디스커버리 충북

한 장의 사진 : 애국 187호 조선충북호

충북학누리

CONTENTS

01	여는글 고전문학으로 본 충북의 지역성 연구 어강석 충북대학교 교수	03	05	디스커버리 충북 한 장의 사진 : 애국187호 조선총북호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14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노래 속의 무심천 임기현 충북연구원	05	06	충북학 연구소 동정	15
03	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포석 생가의 밤나무 강찬모 포석조명희문학관	09	07	충북 지역학 별거 이슈	17
04	엄마가 들려주는 충북의 옛이야기 황희 정승의 사위가 된 비범한 총각 소몰이보다 힘든 『맹자』 읽기	12	08	충북학 사업 홍보 충북학 원고 모집	19



〈충북학누리〉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행처 충북학연구소

발간 총괄 정삼철 (충북학연구소장)

기획·편집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정 민 (충북학연구소 위촉연구원)

통권 5호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홈페이지 <http://csi.cri.re.kr>

디자인 (주)픽셀즈

발행일 2021.12. 31.

01 여는 글

고전문학으로 본 충북의 지역성 연구

글: 어강석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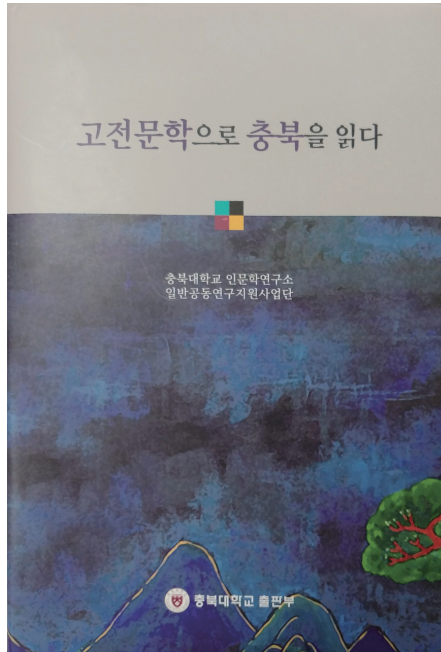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된 요즘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상의 세계에서 세계 각지의 문화들을 배우고 즐기는 것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환경의 변화는 세계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더 이상 특정지역에만 한정된 문화가 아닌 세계의 문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지역성이 곧 세계성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들이 지역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이며, 1990년 이후에는 광역 지자체에서부터 지역학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이후로는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정립이 곧 경쟁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 동안 지역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성과 정서가 조금씩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조금 일찍 시작한 충북학을 비롯해 기초 지자체별로 청주학, 충주학, 제천학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어떤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서가 충북의 지역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정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발현해 낼 때 충북학의 실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제 탐구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충북의 지역성을 탐구하는 연구서가 발간되었다. 이것은 충북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2018년부터 2년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충북을 오랫동안 설명해온 ‘청풍명월’, ‘선비정신’, ‘애국충절’ 등의 개념어들이 온전히 충북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북만의 키워드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충북의 로컬리티는 충북 이외의 지역과는 이질적이면서도 충북 내부에 있어서는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서는 ‘충북’의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충북은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경기와 경상·전라를 오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러야 했던 곳인 만큼 외부로 향해 열려 있으면서도, 바로 그런 까닭에 내부적인 폐쇄성의 정도가 한층 견고해졌음을 전제하고 있다. 충북은 동북쪽으로 죽령(竹嶺), 중앙으로는 조령(鳥嶺), 서남쪽으로 추풍령(秋風嶺)에 임해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하여 교차지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충주와 청주는 경(京)과 향(鄕)의 끝이며, 시작 지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험준한 고개를 넘어 가면 향(鄕)으로 퇴거(退去)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며, 고개를 넘지 않고 거처를 마련하면 언제든지 출사할 수 있도록 잠시 은거(隱居)하려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고전문학 자료만을 대상으로 충북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고전문학 작품은 당시를 살았던 인물들의 정서가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충북학’은 문학으로만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 인물, 민속,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전문적인 연구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이다. 충북의 정체성을 실제로 발현해 내는 것은 바로 현재의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마을 공동체들을 활성화시켜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문헌으로 연구된 결과가 가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농익은 결과를 단시간에 내놓기를 요구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분들이 합쳐지고, 오랜 기간의 숙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렇게 형성된 문화와 정체성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첨가된 성분들을 하나하나 맛보아 구별해 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충북학’ 연구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02 대중문화와 충청북도

노래 속의 무심천

글 임기현
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방송에서 우연히라도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나면,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다. 지역을 소재로 한 좋은 노래는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타지 사람들이 그 노래에 언급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지역을 찾게도 한다. CNN의 분석처럼, 서울의 천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여는 데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큰 역할을 했다. 또, 2012년 버스커버스커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는 “여수를 먹여 살리는” 노래가 되었다. 2020년 6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종식 후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를 조사한 결과, 여수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국민 뇌리에 이 한 곡의 노래가 깊이 각인된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을 알리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한 곡의 노래는 그 가치를 쉽게 따지기 어려울 만큼 소중한 자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노래 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지역에도 박재홍의 <울고 넘는 박달재>(1948)가 있어 제천의 ‘박달재가요제’로, 남상규의 <추풍령>(1965)이 있어 영동의 ‘추풍령가요제’로 지역을 알리는 역할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도 한몫을 하는 문화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 충북의 대표 도시, 청주를 소재로 한 노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단연코 무심천을 다룬 것들이 많다. 무심천은 가끔 큰 홍수로 자신의 존재감을 일깨울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늘 있는 듯 없는 듯이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 안고 유유히 흐른다. 무심천(無心川)은 그 역사도 유장하거나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고유하면서도 품격을 가진 멋진 하천 이름이다. 그 때문일까. 많은 문화예술인이 무심천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무심천은 문화예술의 원천이기도 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필자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이 남아 있는 것은 법정 스님의 수필 속에 나오는 바로 이 대목이었다.

청주는 이름 그대로 맑은 고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 얼굴이 하나같이 말끔말끔해 보였다. 전국의 웬만한 도시치고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청주처럼 인상이 좋은 도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거기 시가지를 흐르는 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심천이라고 했다. 무심천,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그렇다. 냇물은 무심히 흐른다. 냇물이 만약 사람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분별을 가지고 흐른다면 끝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도중에 갇히고 말 것이다. 물은 한곳에 갇히면 썩는다. 그저 무심히 흐르기 때문에 산과 개울을 지나고 논밭을 지나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이 생명의 바다에 들어가야 출렁거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물소리 바람 소리」, 샘터, 1987, pp.231~232.

무심히 흘러야 비로소 생명의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것, ‘무심천’에 관한 이만큼 멋진 해석이 다시 있을까 싶다. 청주와 무심천을 잘 모르는 사람도 단번에 사로잡을 명문장이라고 생각한다. 낯선 도시 청주로 대학 진학을 해서 어수선한 마음이었을 때, 이 글은 나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심천을 노래한 곡 중에 우리가 함께 부르고 기억할 만한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가곡

① 이은상 작시, 이흥렬 작곡의 「무심천을 지나며」, 「무심천의 노래」

무심천이 갖는 품격 때문일까. 무심천은 여러 곡의 가곡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우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시조 시인 이은상이 1950년대에 발표한 「무심천」(「노산시조선집」, 1958)을 바탕으로 가곡 작곡가로 유명한 이흥렬이 두 곡의 가곡으로 재탄생시킨 것이 있다. <무심천을 지나며>와 <무심천의 노래>인데, 두 곡의 악보 모두 「이흥렬 가곡집」(정음사, 19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심천을 지나며

세상이 어지러워/ 마음 둘 곳 바이 없어/ 막대를 이끌고서/ 영호를 헤매노니/
무심천 밭 언덕길로/ 또 한 사람 지나노라/ 다정한 길 나그네/ 밭을 잠깐 머물고서/
무심천 흐르는 물/ 유심히 바라볼 제/ 저 물도 내 마음 알아/ 따라 울어 에더라.

무심천의 노래

그 옛날 어느 분이/ 애타는 무슨 일로/ 가슴을 부여안고/ 이 냇가에 호소할 제/
말없이 흘러만 가매/ 무심천이라 부르던가./
눈물이 실렸구나/ 보태어 흐르누나/ 원망이 잠겼구나/ 흐르는 듯 맺혀있어/
지금의 여흠 여흠이/ 목매어 우누나./ 입 잃고 외로워서/ 새벽달을 건너신 이/
나라이 망하오매/ 울며 고국 떠나신 이/ 쓸린 듯 끼치신 발자국/ 나는 분명 보았노라.

앞의 곡에서는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의 쓸쓸한 심정을 무심천 냇물에 투영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곡에서는 무심천에서 망국의 한을 품고 망명길에 오르려는 우국지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비장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② 오동일 작시·작곡의 「무심천」

청주교대에서 13년 간(1961~1974) 재직한 오동일 교수가 직접 작시하고 곡을 붙인 가곡 「무심천」이 있다. 이 곡은 「오동일의 가곡집」(세광음악출판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주합창단의 노래로 유튜브에서도 바로 들을 수 있다.



아득히 보이는 한별을 헤치며 / 흐르는 물소리 무심도 하여라 /
지나던 옛 이가 냇물을 따르며 / 심중의 속량(속난)을 던지고 갔으리 /
아 무심천 / 아 무심천 /
소록소록 저 물소리 속삭이듯이 /
세상사 그 모두가 물같이 흐르다네 / 세상사 그 모두가 물같이 흐르다네//

오동일 교수는 청주에 홀로 내려와 무심천 가까이에서 하숙하면서 적적할 때마다 무심천 독을 산책했다고 한다. 지금보다 교통이 아주 불편했던 시절, 흐르는 무심천 물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곤 했던 옛사람을 생각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지 않았을까 한다.

③ 박정희 작시, 이종구 작곡 「무심천」

또 하나의 가곡 명곡이 있다. 박정희 시인의 시에 이종구가 곡을 붙인 「무심천」이다. 최영식의 「우리 가곡 이야기」(2004) 음반에 실려 있는 이 곡 역시 유튜브에서 바로 들을 수 있다.



마음을 주고 나면 / 강물이 울고 / 강물을 떠나보면 / 마음이 운다//
 독길에서 멀어지면 / 눈이 아리고 / 대숲에서 멀어지면 / 귀가 아리고//
 내 마음 따로 둘 곳 / 여기밖에 없어 / 떠돌다 멈추는 곳 / 여기밖에 없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심천을 떠나고 싶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숙명처럼 무심천에 붙들려 있는 이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이 곡에서도 마음이 ‘아릴’ 정도로 짙은 비애감이 물씬 느껴진다.

④ 신영옥 작시, 장기찬 작곡 「아! 무심천」

앞에 가곡들이 비교적 차분하고 슬픈 느낌을 주는 것과 달리, 충북 출신 신영옥 시인의 시에 장기찬이 곡을 붙인 「아! 무심천」은 분위기가 한결 밝다. 이 음반은 장기찬의 「창작가곡 제5모음집 통일열차」(2014)에 실려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바리톤 송기창의 음성으로 쉽게 들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라 저 무심천 / 계절 따라 피고지는 꽃길 따라 천리길 /
 무심천에 물든 하늘 청주땅에 내려놓고 / 긴 여울에 흘러가는 굽이굽이 인생길에
 자연과 벗이 되어 어우러져 살라하네 / 아 청풍명월 내 고향 무심천아 /
 당신을 그리는 내 마음 무심히도 흘러만 가네//
 청풍명월 바람 타고 금수강산 한가운데 / 청주 지나 미호에서 금강으로 흘러흘러/
 백로무리 하얀 날개 서해바다로 날아드네 / 징검다리 내를 건너 함께 놀던 벗님들아 /
 지금은 어디서나 푸른 꿈을 펼쳐가네 /
 아 청풍명월 내 고향 무심천 아//

청주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작시라고 생각한다. 무심천의 지리적 환경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가 잘 녹아 있는 이 곡은 지역정체성 교육을 위한 학교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2. 대중가요와 무심천-이미지의 「달뜨는 무심천」, 「무심천」

물론, 무심천은 대중가요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국내 최대 음원 유통 플랫폼인 ‘멜론’에 들어가면 제목에 ‘무심천’을 차용한 노래가 무려 32곡이나 등장한다.

그중에서도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엘레지(elegy, 悲歌)의 여왕으로 불리는 이미지의 노래가 두 곡이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반갑다. 두 곡 모두 당대 최고의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나 만들어진 노래들이다.

첫 곡은 1966년의 ‘황백(황해, 백설희) 가요극장(지구레코드사)’에 실린 「달뜨는 무심천」으로 작사가는 ‘울고 넘는 박달재’로 유명한 반야월이고, 작곡자는 김소월 시 「부모」에 곡을 붙



여 유명세를 탄 서영은이다. 이미자의 20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곡 「무심천」은 앞의 곡보다 약 20년 지나서 1985년에 발표된 음반 「사연/무심천」(태양음반)에 실려 있는데, 박지훈 작사에, 작곡은 당시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렸던 박춘석이 했다. 두 곡 모두 유튜브에서 이미자의 원곡으로 만날 수 있다.



① 달뜨는 무심천(1966)

무심천 물소리 구슬픈 그 밤 / 서로가 헤어질 운명을 안고 /
서공원 노송아래 굳게 맺던 백년 정이 / 이렇게 이렇게 변할 줄은 그 누가 알겠어요. /
아-아-아 무심천아 너는 알고 있느냐.
무심천 돌다리 달뜨던 그 밤 / 돌난간 붙들고 올든 그 사랑 /
꽃 피는 명암방죽 약물터에 맺은 정이 /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니, 누구의 잘못이요. /
아-아-아 무심천아 나는 간다 안녕히 //



② 무심천(1985)

잊으라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사무쳐 /
미워하는 마음 씩이 튼다면 차라리 미워나 하지 /
그렇게 잊지 못할 사랑이라면 그 누가 상처받으리 /
흐르는 무심천을 스치는 바람은 꿈이었나 /
미련 없이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
사모하는 마음 지울 수 없어 차라리 붙잡을 것을 /
긴 세월 두고두고 슬퍼한다면 그 누가 이별을 하리 /
쓸쓸한 무심천의 강바람 사랑은 꿈이었나 //



두 곡 모두 남녀 간의 이별과 그 후의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전형적인 트로트의 단조에 실린 두 곡은 독특한 이미자의 음색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애절한 느낌으로 다가 온다. 까마득히 오래 전 「공무도하가」에서부터 강(물)은 이별의 상징으로 활용되었으니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다만, 첫 번째 곡에서는 떠나간 야속한 입에 대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반면, 두 번째 곡에서는 이별의 덧없음을 노래하면서도 떠나간 입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 심정을 표현한 데 차이가 있다. 특히 앞서 발표된 1966년의 「달뜨는 무심천」에는 청주의 명소와 명물, 예컨대 서공원(사직공원)과 그곳의 노송, 무심천 돌난간(돌다리 혹은 남석교), 명암방죽의 약물터 등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 청주색이 좀 더 짙게 드러나고 있다.

일제가 무심천변에 심어놓은 벚꽃 나무가 1930년대에는 이미 벚꽃 터널을 이룰 정도여서, 당시 중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청주를 “벚꽃의 명소로 조선의 요시노(일본 최대의 벚꽃 명소)”로 소개할 정도였다고 한다. 물론, 지금 벚꽃은 해방 이후 베어 버렸다가 1980년대에 다시 심은 것이다. 봄밤의 흐드러진 벚꽃은 예나 지금이나 청춘 남녀들을 무심천으로 불러들였을 것이다. 설레는 만남이 있으면 쓰라린 헤어짐도 있다. 이러한 눈물의 노래를 부르며, 슬프고 아린 마음은 흐르는 무심천 강물에 내려놓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까마득한 옛날부터 청주사람들의 온갖 사연을 품은 무심천은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의 원천이 되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그 작품들은 청주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분주한 일상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끝내는 한없는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 코로나로 점점 지쳐가는 요즘, 무심천 노래에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

03 시로 읽는 충북의 문화공간

포석 생가의 밤나무

글: 강찬모
포석 조명희 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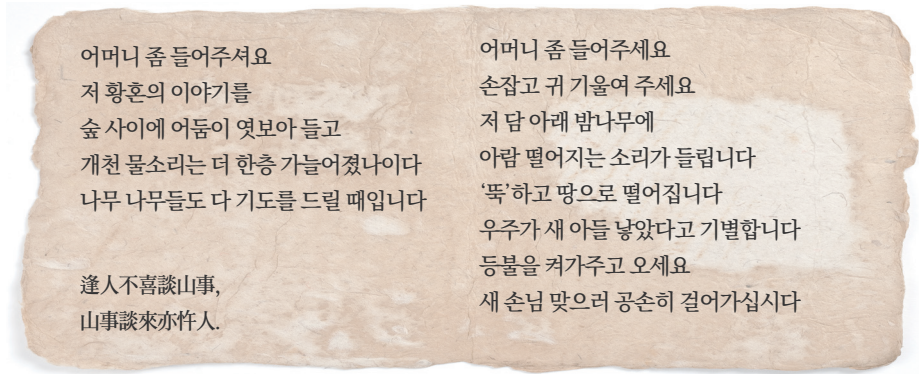
포석(抱石) 조명희(1894~1938)는 충북 진천의 벽암리 수암 마을에서 태어난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매우 독특한 이력과 위상을 갖는 작가이다. 포석은 우리 문학사에서 일곱 가지 최초의 선구적 업적을 남겼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그의 독특한 이력과 위상을 규정한다. 문화 공간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의 문학의 발자취를 간단히 일별해 보는 것이 그의 체취가 묻은 공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포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희곡집인 『김영일의 사死』(1923)를 발간했고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미발표 개인 창작 시집인 『봄 잔디밭 위에』(1924)를 발간했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시집은 안석 김억의 『해파리의 노래』(1923)이다. 그러나 이 시집은 안서가 이미 각종 문예지 등을 통해 발표한 시를 묶어 발간한 시집이다. 발표된 미발표든 첫 번째 시집 발간의 역사성은 물론 안서의 뒤편이지만 ‘미발표’라고 전제된 타이들이 있는 한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유의미한 역사성을 추가하는 일이다. 지금도 여전히 발표할 지면을 할애 받지 못하는 다수의 시인 혹은 시인 지망생들이 미발표된 시를 모아 시집을 출간하는 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설 「낙동강」(1927)은 우리나라 프로문학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 작품이다. 그 전에 소설의 흐름은 소위 「신경향파」 소설이 주류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실의 진단과 비전 제시에 실패함으로써 뚜렷한 목적의식을 동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데 비해 포석의 「낙동강」은 이러한 신경향파 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를 기준으로 프로문학의 지향성에 가장 근접한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 추가될 업적으로 「낙동강」이 최초로 「강」을 ‘표제(表題)’로 한 소설이라는 점이다. 그 시대가 일제 강점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강이 갖는 민족의 상징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포석은 소련으로 망명(1928)을 하는데 이 망명은 일제 강점기 작가로서 첫 망명이다. 그는 현지에서 국외 첫 ‘망명문단’을 결성하고 『노력자의 조국』이라는 망명문예지를 발간했다. 동일한 시대적 현실의 자장 안에 있던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재외 한인들의 삶의 조건과 견주어 볼 때 포석이 걸어난 문학의 발자취는 더욱 도드라진다. ‘디아스포라(Diaspora)’ 문학의 개척자란 위치도 이와 관련된다.

포석의 첫 시집인 『봄 잔디밭 위에』는 43편 3부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1부 ‘봄 잔디밭 위에’는 23년 귀국(일본 유학) 후 고향에서 쓴 시 13편이고 2부 ‘노수애음’(8편)과 3부 ‘어둠의 춤’(22편)은 일본 유학시절에 쓴 시로 구성되었다. 시에 나타난 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고향에서 쓴 시가 생애적으로 정서적 친밀감이 높을 텐데 직접적으로 시에 노출된 대표적인 시가 「경이 驚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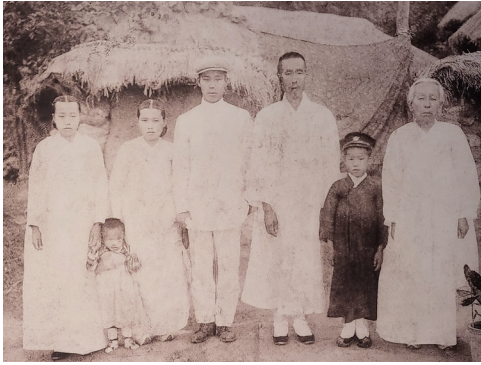
이 시는 일본 유학을 마친 포석이 귀국 후 문학의 진로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할 때 쓴 시이다. 자신의 고백을 담은 「생활기록의 단편」이란 글을 보면 “타고르류의 신낭만주의나 고리끼류의 신사실주의냐”를 놓고 갈등하던 시기이다. 그러니까 시를 쓸 것인가 소설을 쓸 것인가의 문제가 고뇌의 핵심이었다. 당시 문인들은 직간접적으로 타고르의 시 영향권 안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양 최초 노벨문학상(1913년) 수상자인 『기탄잘리』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이다. 대표적인 시인과 작품이 만해의 『님의 침묵』인데 포석의 문학도 이런 저간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 있었다. 「경이」에 나타난 신비적이고 목가적이며 낭만적인 구원의 정도도 이런 시대의 산물이다. 어쨌든 포석은 그 후 신사실주의를 표방하는 소설에 전념하게 되는데 「낙동강」은 이에 화답하는 성격을 갖는다. 시 「경이」에 나오는 “담 아래 밤나무”는 실제 포석의 집에 있던 나무이다.

끝으로 나는 내가 일곱 살 적에 있는 일을 하나 더 적어보려 한다. 우리 시골집 울안에는 커다란 밤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할아버지가 떠다 심은 나무였다. 하루아침 일어나니까 포석이 너 뒤울안에 가 보아라 밤이 떨어졌을 게다. 어젯밤에…… 하기에 나는 달려가 보았다. 그런데 알밤이 수두룩 떨어져 있었다. 나는 한 주머니 주어왔다. 포석은 알밤이 툭툭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못 잤다고 한다. 그때에는 무심히 여기고 들은 일이지마는 그의 첫 시집이 나왔을 때 그의 시 「경이」를 읽고 나서 비로소 그때 그의 말을 되새기게 되었다. 지금도 간혹 자다가 들은 고향, 집 뒤울안의 밤나무에서 알밤 떨어지는 소리가 쟁쟁히 귀에 들린다.

- 조벽암, 「그에 대한 일화 몇 가지」 전문

위의 인용문은 포석의 조카인 벽암(碧岩) 조중흡(1908~1985)의 말이다. ‘호(號)가 이름처럼 불리어 ‘조벽암’으로 더 알려진 작가이다. 한 집안에서 태어나 포석의 문학의 지양분을 흠뻑 받고 삼촌인 포석을 삶의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각별했다. 역시 포석처럼 프로문학을 지향했으며 시집 『향수』(1938)와 『지열』(1948)을 펴낸 후 49년 월북했다. 북한에서의 행적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과 조선문학 주필 그리고 평양문학대학장을 역임하고 1985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료가 귀한 포석의 삶과 문학에서 벽암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월북이후 포석과 얽힌 추억이나 기억의 단편들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포석의 삶과 문학을 재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천 벽암리 포석의 생가는 복원이 안 된 상태이다. ‘문학관’과 ‘포석공원’이 선제적으로 조성된 현실을 감안할 때 생가의 근원적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정확한 생가 터는 추측만 할 뿐 그곳이 생가 터라는 결정적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의 금제(禁制)를 붓으로 혁파하려 한 시대의 이단아에게 현실은 냉혹했고 가계는 풍비박산이 났으며 세월은 무상했거늘 어찌 온전한 보존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다만 ‘벽암리’란 동네가 ‘양주 소 씨’ 세거지(世居地)인 데다 포석을 비롯한 4형제가 지근거리에서 너나들이 하면서 살았던 동네였기 때문에 분분한 생가 터를 딱히 고집할 이유는 없다. 인근 사람들에게 ‘조 대감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포석의 집안은 벽암리와 진천은 물론 구한말 조선의 명망가였다. 이런 이유로 정황상 가장 타당한 장소를 생가로 복원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 일본유학 중 동우회 고국 순회공연 때 청주 공연을 마친 후 집에 잠깐 들러 찍은 사진(1921). 학생모 쓴 아이가 조벽암이다.



▲ 생가 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느티나무와 지척에 생가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간은 사람을 만나면서 특별한 의미로 탄생한다. 사람의 때가 묻지 않은 빈 공간은 죽은 공간으로 어떤 삶의 이야기와 향기도 담지 못한다. 더구나 그 공간이 기리고 추억해야 할 사람과 인연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결국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고 회억(回憶)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일체를 현재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도 공간도 이런 맥락인 셈이다.

지금부터 마음이 설렌다. 머지않아 복원될 포석 생가의 뒤울안에 밤나무를 심을 생각을 하니 묘한 떨림이 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 살뜰히 가꿔 마침내 밤이 익어 아람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싶다. 포석처럼 그 소리를 우주가 새 아들 낳았다고 느끼고 싶다. 밤이 떨어지는 소리를 우주로 확장할 감수성이 과연 내게 있는지 자신하지 못하지만 포석의 열린 감수성을 한 번만이라도 닮고 싶다. 어쨌든 복원될 포석 생가에 심게 될 밤나무는 포석 동산으로 내왕하는 못 사람들의 마음을 마르지 않게 촉촉이 적셔주며 밤처럼 알토랑 같은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04 엄마가 들려주는 충북의 옛 이야기

황희 정승의 사위가 된 비범한 총각

글: 이흥선
해성 인문학
네트워크



옛날 황희 정승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였어. 중국에서 작은 함을 조선에 보내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야. 함을 열어 보지도 않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나.

임금이 조정 대신들을 전부 모아 놓고 고민하는데, 한 대신이 말했어.

“황희 정승께 함을 보내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그 양반은 도덕이 높고 유식한 어른이니 알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로구나. 당장 보내거라.”

함을 받아 든 황희 정승은 먹는 것도 잊고 골똘히 생각했어.

‘이걸 모르면 조선이 망신을 당할 텐데……. 이 일을 어떡하면 좋을꼬?’

그때 길을 가던 젊은 총각이 찾아왔어.

“주인어른 기셔유? 지가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너라.”

총각과 마주 앉은 황희 정승은 답답했던 마음에 함을 내보이며 말했어.

“대국 천자가 조선에 이인(異人: 제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이 있나 없나 보려고 함을 보냈는데 저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모르겠구나!”

“그걸 뭘 모른대유?”

“그래? 이 함속에 뭐가 들었는지 자네는 알겠나?”

“지가 알려 드리면 지를 사위 삼아 주셔유.”

허참, 이 총각이 말이 참으로 맹랑해. 황희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딸 하나 아끼려다 나라 망신시키면 안 되겠거든.

“그러면야 내가 사위 삼지.”

“그러면 먼저 혼례를 올려 주세요.”

황희 정승은 딸을 총각에게 시집보냈어. 혼례 다음 날 아침 문안을 드리려고 사위가 찾아왔을 때였어.

“이제는 함 속에 뭐가 들었는지 말해 보거라.”

“예, 지필묵을 내어 주세요.”

총각은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어.

‘단단석중물(斷斷石中物), 반백반황금(半白半黃金).

야야지시명(夜夜知時鳴), 함정미토음(含情未吐音).’

황희 정승은 글을 받아 읽었어.

“단단한 돌 속의 물건은 반은 흰색이고 반은 황색이라. 밤마다 시간을 알고서 울지만 함정 속에 있으니 소리를 토하질 못하는구나!”

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하던 황희정승은 무릎을 탁 쳤어.

‘웁거니, 달같이로구나! 달같이야.’

황희 정승은 곧 바로 임금에게 답을 올렸어.

“과연 황희 정승이로구나!”

임금님은 기뻐하며 함을 다시 중국 천자에게 보냈지. 천자가 말하더라.

“아하, 조선에도 이인이 있구나!”

전승지: 단양군 단양읍

**소물이보다
힘든
『맹자』 읽기**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어. 한 총각 머슴이 주인을 가만히 지켜보니 주인 팔자가 참 좋더라 말이지. 높은 대청 위에서 도포 입고 버선 신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맹자』만 읽고 있으면 되거든. 그런데 머슴은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나. 소 꼴 베어오랴. 나무 해 오랴. 밭일에 논일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 신세타령이 절로 나왔지.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신선놀음 하고 있는데 내 팔자는 어째서 삼복더위에 소나 몰고 일을 해야 하는 요 모양 요 꼴이 됐나.”

이 말을 들은 주인이 머슴을 불렀어.

“얘야, 너 하는 말 다 들었다. 세상이 불공평해선 못 쓰지. 하니까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처지를 바꾸자. 내가 소를 몰고 일을 할 테니 너는 내 옷을 입고 여 와서 『맹자』를 읽거라.”

주인은 옷과 버선을 벗어 머슴에게 입혔어. 또 머리에 상투를 틀고 망건을 씌우고 도포를 입혀 대청에 앉혔지. 물론 『맹자』 책도 빼먹지 않았어. 머슴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막상 주인의 옷을 입고 대청에 앉게 되니 기분이 좋았어.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았지. 허허, 누워서 떡먹기랄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당최 몸이 썩서 견딜 수가 없었어. 딱딱한 마룻바닥 때문에 다리는 아파 오지, 버선을 신은 발은 덩지, 망건 밑으로 땀은 줄줄 흐르는데 『맹자』를 읽으려니 당최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결국 『맹자』 한 대목을 채 못 읽고 주인에게 말했다.

“그저 소인이 잘못했구먼유. 저는 소 몰고 일하는 것이 낫지, 이거 도저히 못 하것어유.”

머슴은 다시 쇠꼴잡병이로 갈아입고는 소를 몰고 나가 일을 했어. 그런데 소가 영 말을 안 듣는 거라. 이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거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머슴이 말했다.

“이놈의 소, 어저저저! 자꾸 말 안 들으면 대청에 올려 얹혀놓고 『맹자』나 읽으라고 할겨!”

전승지: 영동군 학산면

* QR CODE를 스캔하여 충북학연구소 홈페이지(csi.cri.re.kr)를 방문하시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05 디스커버리

충북

한 장의 사진 :
애국 187호
조선총복호

글: 최병철
충북학연구소



〈1937년 충북 지역에서 헌납한 전투기 애국 187호 조선총복호 (개인소장)〉

1930년대 들어 일제는 침략 전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조선군 사령부에 애국부를 설치하고 자국 내 군용기 헌납 열기를 식민지 조선에 확산시켰다. 1932년 헌납금으로 제작된 애국 1, 2호기를 만주로 이동시키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조선의 각 지역을 돌며 환영행사를 개최하여 조선인들의 헌납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납을 강요하였다. 이에 친일 관료, 지식인, 기업가 등이 앞장섰고, 종교계에서도 적극 동참하였다. 단체와 지역별로 헌납기 건조를 위한 모금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1935년에 조선국방비행기 헌납회에서 충북에 '충북호' 1대 헌납을 결정하였고, 도지사 주도로 모금한 80,200원을 1937년 9월 3일에 조선군사령부에 헌납하였다. 당시 농민의 1년 수입의 10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헌납금으로 육군 비행기 애국 187호 '조선총복호'를 건조하고, 1937년 12월 15일 청주군 강외면 미호천변에서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명명식을 가졌다. 이후 충북에서는 1937년 10월부터 1939년 1월까지 모금하여 해군 함상폭격기 '보국 제314호 충북호'를 헌납하였다. 이때 일본인들은 육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에는 '애국'이라는 호칭을, 해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에는 '보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일제는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조선 내에서 군용기 헌납을 강요하였다. 일제강점기 전시체제가 국방헌납 등의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 분단과 전쟁, 체제 경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권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생활 깊숙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06 충북학연구소 동정

2021년 2차 충북학포럼 개최



지난 12월 3일(금) 13:30~16:30까지 괴산문화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충북학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괴산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우당 권동진 선생 탄생 16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로 충북학연구소와 괴산문화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북학연구소와 괴산향토사연구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충북의 독립운동가 우당 권동진 선생의 생애와 독립사상”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박결순(충북대 사학과 교수), 김근수(괴산향토사연구회 고문) 3명이 발제하고, 정삼철(충북학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정을경(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대록(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조혁연(충북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포럼에서 권동진 선생의 생애와 사상, 교유 관계, 시문 등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선생의 업적과 위치를 재조명하였다. 이번 포럼의 연구 성과는 앞으로 권동진 선생에 대한 연구와 기념사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주군세요람』 편역 발간



충북학연구소에서는 2021년 11월 『청주군세요람』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충북학연구소가 계속해 오고 있는 충북 지역 향토사로 국역화사업의 하나로, 1930년에 청주군에서 일본어로 발간한 책을 편역하여 다시 발간하였다. 『청주군세요람』은 식민지 조선의 경영자로서 일제의 시각으로 당시 청주군의 지리·행정·교통·산업·경제·교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당시 일제의 수탈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인 2021년 <충북학이시습 아카데미>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디지털교육콘텐츠 제작으로 진행하였다. 올해는 ‘충북의 물’이라는 주제로 제천의 의림지, 충주의 수안보 온천, 청주의 초정약수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충북학연구소’에 업로드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충북학연구소서8
『전환기,
충북문화예술의
미래가치 모색』
발간**

충북학연구소에서는 2021 충북학 미래기획 연구사업의 하나로 “전환기, 충북 문화예술의 미래가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연구총서를 기획하고 발간하였다. 이 책은 제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커다란 전환기로 보고, 충북 문화예술의 현재를 살펴 미래를 전망하려는 목적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제1부 패러다임 전환기 충북 문화예술의 고민거리, 제2부 역지사지로 다가서야 할 문화예술정책, 제3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할 충북 문화예술, 충북 문화예술의 혁신적 미래 확장 등 4부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마다 3편씩, 모두 12편의 글을 실었다. 이 책에는 예술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현장의 시선으로 충북 문화예술의 정책과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총서가 앞으로 충북의 문화예술 정책과 시행, 창작·유통·향유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각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연구로 이어지길 바란다.

07 충북 지역학 별거 있슈

옥천

옥천문화원 부설 옥천학연구소

2020년 7월 29일 창립한 옥천학연구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옥천학 발전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진행했다. 2021년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옥천학으로 찾아가는 청소년인문학'을 비롯해 제46회 중봉충렬제 중봉 조헌 학술세미나, 중국 방면 옥천출신 독립운동가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옥천학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2022년에는 옥천학 정기 학술대회 개최, 옥천학 총서 편찬을 기본 사업으로 진행하고,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를 병행하는 옥천학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옥천의 역사, 문화, 예술, 농업, 자연환경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옥천학이 대중화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을 위하여 옥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찾아가는 청소년 옥천학 강좌를, 충북도립대학에 옥천학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제천

제천문화원 부설 제천학연구소 설립 준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광역 지자체는 물론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각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지역학 연구소가 설립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서는 옥천군과 충주시에 이어 제천시에서 제천학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제천문화원 부설로 설립될 제천학연구소에는 소장을 비롯해 전문 연구인력 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제천학연구소는 제천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정리하여 제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가치 자원을 발굴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2월 현재 시의회에서 제천학연구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에 개소할 예정이다.

충주

충주문화원 부설 충주학연구소 개소

충주학연구소가 2021년 9월 15일 개소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충주학연구소는 충주문화원 부설 기관으로 충주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충주인의 더 나은 삶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충주학은 역사 이전부터 중원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영역을 발굴 및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주 지역 발전과 충주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학문으로 정의된다. 이에 연구소에서는 중원문화 연구의 중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충주지역 문화자원·미래유산 보존 및 연구를 통해 발전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내고자 준비하고 있다.

충주학연구소에서는 먼저 충주지역의 미래가치를 품은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충주학 확립을 위한 지역의 문화자원과 미래유산을 수집 및 보존하고, 관련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충주학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소에서는 충주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지역사회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충주지역 정책개발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고, 지역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개발된 콘텐츠는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사업으로 확장되어 지역사회 저변으로 충주학이 스며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연구소는 이와 같은 목표와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으며, 다가오는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운영 추진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주의 문화자산과 함께 미래유산의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연차계획 하에 준비하고 있으며, 충주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충주학 학술총서 발간도 계획하고 있다. 충주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충주학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술포럼 및 세미나 개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충주학연구소는 앞으로 충주 지역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술기관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살아 숨쉬는 충주학 연구를 바탕으로 충주인의 삶의 가치를 풍요롭게 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선도적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충주학연구소 개소식 (2021.09.15)

2022년

“충북학 제24집 원고모집”



충북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충북학'을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발간 『충북학』 제24집의 원고를 모집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해석과 재조명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원고를 투고해 주시면 편집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예정입니다.

모집 정보

모집분야 | 충북관련 연구논문 및 비논문 원고 모집

모집 대상

연구자, 대학원생, 대학생, 일반인

분야	편량
연구논문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연구논단(논문과 저널의 중간수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한글 파일로 제출)
충북학 관련 저널(문화초점, 인물탐구, 자료소개, 서평 등)	

모집 일정

원고마감: 2022년 10월 30일
게재심사: 2022년 11월 15일
결과통보: 2022년 11월 16일
발간시기: 2022년 12월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cbc9236@cri.re.kr

문의 | 043) 220-1161~2

- ※ 자세한 사항은 충북학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The Chungbuk Studies Institute

충북의 정체성 구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합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전화 043.220.1161~2

홈페이지 <http://csi.cri.re.kr>